

의안번호	제 479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월 일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479

제안연월일 : 2016. . .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주 문

- 세종역 신설시 오송역은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며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게 됨은 물론 막대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되므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제안이유

-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차 횟수가 하루 120여회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객 수가 412만명으로 큰 폭으로 급증해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세종역 신설시 오송역과는 21km, 공주역과 2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 57km에 역행하게 되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고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한다는 충청권 합의 정신에 위배됨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KTX 오송역이 수천억원을 투자해 2010년 개통됨으로써 오송역을 비롯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상생의 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차 횟수가 하루 120여회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객 수가 412만명으로 큰 폭으로 급증해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해 전국 어디에서든 2시간 대의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세종시와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중앙부처 공무원과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하고 있는 철도역으로서 국가철도망의 핵심축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철도시설입니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 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세종역 신설시 오송역과는 21km, 공주역과 2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 57km에 역행하게 되어 저속철로 전략하게 됨은 물론 불과 5분의 시간절감을 위해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게 됨으로써 이는 지역적 이기주의에 발상한 이중투자 및 막대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신설역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 당시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한다는 충청권 합의 정신에

위배 되어 세종시와 충청권 공조체계를 분열시키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의 의미 또한 퇴색될 것입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는 BRT를 이용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오송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요금체계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철도시설공단의 선로확충 용역과 관련하여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토 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